

‘극장 품은 함평엑스포공원’ 함평자동차극장 28일 개장

호남권 3번째...180대 규모 관람시설·사전 온라인 예매시스템 등 갖춰 ‘4·4·8관광프로젝트’ 첫 단추...1대당 2만원 하루 2차례 최신 개봉작 관람

나비축제, 국향대전 개최장소로 유명한 함평엑스포공원이 전국 최고 수준의 야외 자동차극장까지 품었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함평전지길, 짙라인, 스카이워크 등의 관광 인프라 조성사업도 본격 추진될 예정이라 군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4·4·8관광프로젝트’가 조기에 본 궤도에 오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함평군에 따르면 함평자동차극장이 오는 28일 개장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호남권(광주·전남·전북) 자동차 전용 극장으로는 광주와 여수에 이어 역

대 3번째다. 함평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함평자동차극장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총 사업비 9억여 원을 들여 함평엑스포공원 황소주차장 일원 1만1000㎡ 부지에 대형스크린(23m×15m) 2개와 매점, 매표소 등을 새롭게 조성했다.

총 2개관으로 이뤄진 함평자동차극장은 총 180대의 차량이 서로 다른 2편의 영화를 동시에 관람할 수 있다.

각 상영관은 지역 대표이미지를 형상화 한 나비관·황금박쥐관으로 건립됐으며 황금박쥐관의 경우 비가림막

과 다목적 무대(20m×12m)도 함께 설치돼 영화 상영 외의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도 상시 개최할 수 있다.

특히 함평자동차극장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매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국 자동차극장 가운데 인터넷 사전 예매가 가능한 곳은 함평자동차극장과 CGV×CAR CINEMA 서울랜드점 단 두 곳뿐이다.

군은 온라인 예매 시스템이 조기에 안착되면 안정적인 극장 운영과 함평엑스포공원 등 인접 관광지에 대한 관광 수요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군은 또 지역방식의 운영 이점을 살려 현장결제 시 함평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 포함)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함평사랑상품권은 구매 당시 10% 할인혜택이 적용되는데 이를 사용해 결제하면 관람료의 10%가 할인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함평자동차극장은 개장식 당일인 28일부터 정상 관람(당일 무료·29일부터 사전예매 가능)이 가능하다.

입장료는 자동차 1대당 2만 원으로 매일(월요일 정기휴관) 오후 7시부터 0시까지 하루 2차례에 걸쳐 최신 개봉작을 관람할 수 있다.

다만 군은 자동차극장이 지역민 문화 복지 차원에서 조성된 만큼 군민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입장료 면제 또는 별도의 금액 할인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조성된 함평자동차극장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와 국내 문화 활동에 활기를 불어넣길 바란다”며,

“앞으로 군은 자동차극장과 지역관광 자원을 적극 연계하면서 사계절 머물고 싶은 관광함평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함평=김광훈기자

무안군, 자투리땅 소공원 탈바꿈

도로변 등 방치된 땅, 주민 쉼터 공원으로 변화

무안군은 방치된 자투리땅을 정비하여 소공원으로 변화시키는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도로변이나 마을입구에 방치되어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유휴지·공한지의 자투리땅에 소공원을 조성하여 가로경관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군은 2018년부터 자투리땅을 활용

한 소공원 조성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2019년 청계면 목포대 후문과 운남면 연리교차로에 공원조성을 시작으로 작년 환경면 외반리와 청계면 송현리까지 4개소의 소공원을 완료하였다.

금년에는 무안을 성내리와 일로 의산리, 삼향읍 맥포리와 몽탄면 당호리, 해제면 장매리와 용학리에 6개소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예산 절감을 위해 나무은형



의 배롱, 가시, 느티나무 등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군민들에게 쾌적한 가로경관과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것에 매우 큰 보람을 느낀다.”며 “올해사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군민을 위한 행복무안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영광군, ‘잔가지파쇄기’ 무상임대 실시

영농 부산물, 잔가지파쇄기 이용으로 미세먼지 감축·산불피해 방지

영광군은 올해 4월 30일까지 미세먼지 감축 대응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잔가지파쇄기를 무상임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잔가지파쇄기 무상임대 지원은 영농 부산물 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산불화재 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영농 부산물을 파쇄하여 퇴비로도 재활용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잔가지파쇄기 무상임대는 2010년 4월 농기계임대사업소(본소) 개소이래 처음 실시하는 만큼 군민이 잔가지파쇄를 많이 활용함으로써 시대적 흐름

인 ‘미세먼지 감축’이라는 환경보호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농기계임대사업소(3개소)에서 보유 중인 잔가지파쇄기는 3종 12대이며, 농업인 단체, 마을, 개인 등 지정된 기간에 누구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영광=서희권기자

목포시, 코로나에 긴장감 높여 확산 방지에 총력

인근 지역 집단 감염 발생...명절 앞두고 상황·대책 점검

목포시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전반적인 상황과 대책을 점검했다.

시는 21일 강효석 부시장 주재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지역확산 방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최근 영암 관음사와 수림정사, 강진 흥덕사 등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동일 생활권인 목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대규모 인구가 이동하는 설 명절(21~14)까지 다가오고 있어 방역 강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시는 최근 코로나가 밀접접촉이 잦은 다양한 시설을 통해 전파되는 만큼 방문판매업, 소규모 종교시설,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 철저한 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목포시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식당·카페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종교시설 좌석 수 기준 20% 이내 참여 가능 등 행정조치를 시행 중이다.

또 감염병예방을 위한 숙박업소(1개소), 일반음식점(1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위법 사례에 강력 대응하고 있다.

목포=박정수기자

영암군, 가축경매시장 2주 연속 휴장 및 방역활동 실시

영암군은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 추세에 따라 영암축협 가축경매시장에 대하여 지난 18일 휴장에 이어 설 명절 대목장 임에도 불구하고 다가올 25일에도 휴장하기로 하였다.

25일은 설 명절을 앞두고 경매용 출품을 위해 축산 농가들이 기다리고 있던 대목장으로, 영암축협 및 축산 농가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휴장하기로 결정 하였다.

또한 영암축협(이맹중 조합장)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음·면 소재지 및 마을 주변을 중점적으로 축협 방역 차량 3대를 이용하여 22일부터 23일간 코로나 19 방역 활동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영암군 행정과 긴밀한 협조로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 하겠다고 하였다.

영암=조대호기자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에너지 스카우터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주